

벌써 불법·탈법…선거법 위반 132건

■ 광주·전남 지방선거 D-180일

내일부터 단체장 일반행사 참석 못해

금품·음식물 제공·LED전광판 금지

내년 6·2지방선거가 180일(4일) 앞으로 다가왔다. 예비후보자들의 움직임이 분주해지면서 불법·탈법 사례도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본격적인 감시활동을 벌이며 밀착 감시에 나서고 있다. 선거일 전 180일부터

는 단체장도 조심해야 한다. 제한·금지되는 행위가 추가되기 때문이다.

◇선거법 위반 벌써 132건=광주·전남 지역에서 금품·음식물 제공 등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로 적발된 건수는 무려 132건에 달했다.

선거사무소 간판의 경우만 해도 일상화된 LED전광판을 금지하고 있다.

LED전광판이 단순히 알리는 목적의

2일 광주시·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광주는 수사의뢰 1건, 경고 20건 등 모두 21건을 선거법 위반 행위로 적발했다.

전남은 고발 10건, 수사의뢰 4건, 경고 95건 등 111건에 달했다.

◇햇갈리는 선거법=선거법 위반 사례가 늘어나는 원인 중 하나는 '햇갈리는 선거법' 때문이다. 선거법에는 '통상'을 벗어나면 대부분 문제가 된다.

선거사무소 간판의 경우만 해도 일상화된 LED전광판을 금지하고 있다. LED전광판이 단순히 알리는 목적의

간판의 범위를 벗어나 변화무쌍하기 때문이다.

명함도 마찬가지다. 통상 명함에는 학력·경력 등을 계재하지 않기 때문에 넣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명함에 학력·경력 계재는 예비후보자 등록 후에 가능하다. 이 때 학도증은 정규학력만 인정한다. 또 명함 재질도 종이·비닐·PET 등은 가능하지만 스퀘이트(안경닦이), 반사지(거울) 등을 이용한 기능성 명함은 안된다.

단체장 제한 규정은 더 복잡하다. 의회나 보건소, 산하기관 직원의 경우 인사권을 단체장이 행사하다보니

통상 상근 직원으로 보는데 선거법에서는 아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축·부의금품을 제공해서는 안된다. 하지만 표창 때 부상을 줄 수는 있다.

◇4일부터 단체장 일반행사 참석 금지=내년 지방선거 180일 전인 4일부터 차지단체장 등 출마후보자들의 활동이 상당부분 제한된다. 공직선거법 제86조에 따라 선거일전 180일부터 단체장 등의 각종행위가 제한·금지되며 때문이다.

광역 및 기초 단체장들은 이날부터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 외의 모든 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 그래서 주민 차지기구인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에 참석할 수 없다. 다만, 소속 정당이 개최하는 불우이웃돕기·일일찻집 행사나 통·리·반장의 회의에는 참석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행사로 보기 때문이다.

/박정우기자 jwpark@kwangju.co.kr

내년에도 10만명 희망근로 사업

행안부 5,727억 편성

행정안전부는 내년에도 희망근로 사업을 계속하기로 하고 관련 예산 5천727억원을 편성해 총 10만명이 참여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행안부는 참여 인원이 올해 25만6천여명(1조7천70억원)보다 감소한 데 대해 올해 사업이 경제위기에 따라 복지대책 차원에서 추진됐지만, 내년은 고용 증진 등 실업대책 위주로 사업의 성격이 바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희망근로 참여자 선발 방식과 대상 사업도 조정하기로 했다. 참여 대상은 올해 소득이나 재산 기준에 상한선이 없었지만, 내년에는 기초생활비 120% 이하이면서 재산이 1억3천500만원 이하인 자로 한정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사업안을 확정하고서 내년 1월 18~29일 사이에 참여자를 모집해 3월 2일부터 사업을 시작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국민만평

- 김종우



법은 안지키고 傳統을 지키겠단다

MB “일자리 보장 받고도 파업 이해 안돼”

이명박(MB) 대통령은 2일 전국철도노동조합의 파업 사태와 관련, “우리 국민들이 일자리가 없어 고통받고 있는데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보장 받고도 파업에 들어가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서부역의 철도공사 비상상황실을 방문,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등으로부터 파업 현황 및 철도운행 상황을 보고받은 자리에서 “철도적자가 누적되고 있고 서민들의 불편도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진행되고 있는 파업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어떤 일이 있어도 원칙은 지켜져야 하며 법이 준수되지 않으면 앞으로도 이 같은 일은 반복될 것”이라며 “철도청이 조속히 이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파업 일주일째인 2일 광주·전남 지역에서 파업 참여 조합원들이 업무에 복귀하고 있다.

코레일 광주본부에 따르면 업무에 복귀한 조합원은 전남본부 차량지부

29명을 포함한 전국 29개 역과 열차 승무, 시설, 차량사업소 소속 조합원 515명이 복귀했다.

코레일은 이날 새마을호는 44회(평시 74회의 59.5%), 무궁화호는 202회(평시 322회의 62.7%), 화물열차는 76회(평시 300회의 25.3%)를 각각 운행했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화물열차의 운행률을 최대한 높여 수출입 컨테이너와 석탄, 시멘트, 철강, 유류 등 적체된 주요 산업용 화물을 수송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종행기자 golee@.연합뉴스

무등빌딩임대



임대문의 062-222-0527

가은공인중개사

☎ 371-4449 / 010-8289-8549

(상무지구 렌즈파이 사거리)

신축중인 최고급 무인텔 매매

광주 하남상업지역내

대 지 : 736평

연건평 : 883평

객 실 : 32개

매매가 65억원

용 자 : 30억원

월매출 : 1억원

이상 보장

공동중개

환영합니다.

2009년 12월 3일
주식회사 케이이

광주광역시 북구 대전동 1234-15
첨신인 박 윤진

(서울) 퍼스트부동산

☎ (02) 515-8698

010-8245-5585

다산공인중개사

☏ 010-7154-6996 ☎ 972-8004

▶ 빌딩임대용, 투자용

• 토지 177평, 건물 740평

- 매가 30억

보증금 16억/월세 750만/용자 6억

▶ 신축 주거시설 분양

• 중앙공급식 냉·난방

• 타워형 무동산 조망권

전국 짠 땅 팔 분

1천만 ~ 10억

즉시 계약

물물교환도 환영

▶ 상가임대

• 아파트 1300세대 입구

(북구연제동) - 1층 11평

임대가 평당 500만원

전업증 가능

● 구 함 ●

• 골프 연습장 부지 - 광주권

• 가스총전소 및 주유소 부지

• 창고부지

• 공시지가 50%미만 부동산

• 투자용 부동산

CITI 신용대출

직장인 사업자

한국씨티그룹캐피탈(주)

200만원부터

최대 5,000만원

대출 대상

- 직장인(또는 배우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매출 금액

- 최저 200만원~최고 5,000만원

대출 기간

- 1년 ~ 최장 4년까지(6개월 단위)

대출 금리

- 100만원당 1년 만기 상환 시 월 4천 500원부터

신용도를 관리해 드리는 채무 통합 서비스

타 시에서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

고금리에 더 나은 신용도를 얻어드리는 채무 통합 서비스!

취급수수료 면제 및 월 납입금까지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 신축, 임대 등에 관하여 무료 컨설팅 하여 드립니다.

010-7167-3838

아동성범죄 공소시효 없앤다

당정 확정…징역도 최대 50년으로 연장

정부와 한나라당은 2일 반인륜적 아동 성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유기징역의 상한을 최대 50년으로 연장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주성영 당 제1정책조정위원장장을 비롯해 김용태 박민식 이병래 의원 등과 정부에서 황준기 행정안전부 차관, 황희철 법무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현정질서 과과범죄의 공소시효 특례법’에서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것처럼 아동 성범죄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법’을 개정해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또

현행 15년인 유기징역 상한을 30년으로 하되 가중처벌 시 50년까지 올릴 수 있도록 했다. 중대 아동 성범죄는 수사 중이라도 범죄자의 얼굴을 공개하고, 신상공개가 확정되면 인근 주민에게도 우편으로 이 같은 사실을 알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범죄예방의 효과를 거두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아동 성범죄에 대해서는 술에 취한 경우에도 감형할 수 있도록 하고, 선고유예를 선고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한다.

이어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형사미성년의 나이를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개정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제21회 2009 광주 모범기사 대상 시상식 및 운전자 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시민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운전자 가족·장애인 가족·자원봉사자 한마음 대축제’와 함께 개최됐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초중고 봉사·체험활동

학생 스스로 관리한다

내년 새 학기부터 초·중·고교생들이 방과후학교 및 봉사 활동, 체험활동 등 비교과 영역에 대한 자신의 활동 내역을 직접 온라인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생들의 진로·

직업교육 지원을 위해 이러한 기능을 갖춘 ‘창의적 체험활동 종합지원 시스템’을 개발해 내년 3월부터 각 학교에 보급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초·중·고교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은 학생들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적이나 봉사·체험활동 내용, 동아리·독서 활동 사항 등 비교과 활동